



가평파크 골프장 “설레는 티-샷 20일 오픈”

북한강변 그림 같은 풍경과 최고, 최대 시설 갖춰

[2018-03-16 오후 4:58:00]



북한강변 그림 같은 풍경과 최고, 최대 시설 갖춰

가평 파크골프장이 오는 20일 정식으로 첫 문을 연다.

지난 해 8월 완공되어 가평군시설관리공단(이사장 백 병선)이 수탁 운영하는 가평파크골프장은 그동안 최상의 잔디관리와 안전시설은 물론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왔으며 수차례의 시범운영과 초청 경기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.

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가평군 대성리 북한강변에 위치한 가평파크골프장은 40,087㎡의 부지에 경기장 면적이 28,052㎡으로 총 4개 코스 36홀의 국제적 규모를 갖추었으며, 각 홀마다 난이도를 달리해 전문 골퍼들에게도 항상 도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.

이미 입소문을 통해 전국 동호인들에게는 파크골프의 성지로 알려져 관내 동호인들의 이용은 물론 전국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러 오는 골퍼들도 상당수로 알려져 있으며 운

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. 또한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고 운동의 효과와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크골프는 관심만 있다면 클럽하우스에서 골프채와 볼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.

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공단 박 명수 센터장은 “파크골프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의 스포츠가 아니라 누구든 안전하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며, ‘한 번도 파크골프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만 해본 사람은 없다.’ 는 말처럼 9홀이라도 골프를 즐기다보면 그 재미와 운동효과에 흠뻑 매료되어 헤어 나올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.” 고 말하며 “가평파크골프장은 준공 이전부터 공단 인력이 투입되어 최고의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시설개선은 물론 안전과 편의시설 조성에 애써왔다.” 고 말했다. 또한 “전국에서 몇 안 되는 36홀의 대규모 시설로 개장 이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만큼 가평관내 동호인 분들은 물론,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는 추세로 20일 정식 오픈 후에는 타 지역 분들의 이용도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골프경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.” 고 당차게 말했다.

가평파크골프장 031-8078-8015 / 8018

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88-13번지.